

제 2 장 사도 행전 Tape #8091

우리가 성경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장은,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매”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 대 절기가 있는데, 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20 마일[32 킬로]내에 사는 성인 남자는 와야만 하고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루살렘으로부터 20 마일이 넘는 지역에 산다면, 유용할 때마다 와야만 했습니다. 이 3 대 절기에,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믿음으로 개종된 자들이 참석했을 것이며, 이들은 이 3 대 주요 절기의 잔치 날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오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무교병 잔치의 첫 날 이후 50 번째 되는 날에 오는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은 또한, 무교절에 속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후 첫 날을 시작하여 7 일간 계속했습니다. 무교병 잔치의 첫 날은 안식일이었으니, 무교절의 안식일 후 첫 날에서 50 일을 세었을 것입니다. 7 일씩 7 주간이고, 49 일 후의 첫 날이니 50 일이 될 것이며, 이 날을 오순절, 혹은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물이고, 추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심은 곡식을 6 월 초에 거두어, 거둔 곡식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절과 매우 흡사한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로 두 번째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Cukkah, Succoth]이라 하여, 가을에 열립니다.

이 오순절은 특히, 로마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년 중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6 월 여행이 그 어느 달에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이지요. 보통 9 월의 후반기나 10 월의 장막절 기간은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항상 춥습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오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매,” (무교절 잔치 후 50 일째 날,)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누가복음의 맨 뒤 부분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방들 중 하나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 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 있던 은 집안에 가득하며,” 그러나, 여기서는 집이라고 했으므로, 그 경험이 집에서냐, 혹은 성전에서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뒤에 있는 삼천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볼 때,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이 집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성전 경내의 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3 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4 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교회 위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동반하는 세 가지 현상을 노트해 보세요. 첫째는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는데, 허리케인과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둘째는 각 사람 머리 위로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갈라진 불의 혀가 있으며, 셋째는 영이 능력, 혹은 발성을 주거나, 또는, 카톨릭 번역과 같이, 영이 그들의 말에 불어 넣어 다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타 언어란 말은 **glwssa** 인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타 언어를 말하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는 은사로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예를 보인 것이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동반한 이 세 가지의 현상은 흥미롭기에 충분했습니다. 타 언어를 말하는 것은 여러 경우에 반복되고 반복된 유일한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타 언어의 주제를 고전 14 장, 한 장에 할애해 훌륭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록 그들에게 **glwssa**, 즉 타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이지만, 절기에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했고, 놀라서, 이 사람들이 어찌된 것이냐? 이 모두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말하다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dialektov** 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에서 영어 **dialect**[사투리]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투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기고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으로 보면, 대략 15 개국의 언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갈릴리 사람들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 주의를 끄는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5 절 **“그 때에 독실한 유대인들이 천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6 절 **“이제 이 일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입니까? 아주 가능합니다. 수년 전 내가 헌팅톤 비치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아침 나는 강하고 급한 바람에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센 소리로, 내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는 이유를

보려고 나갔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집에서 4 불락쯤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름 저장고 안에서 불이 나, 가스가 바람에 온 천지로 날라 갔습니다. 나 혼자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헌팅톤 비치에 사는 사람 모두가 탱크 안에서 바람에 날려 분출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오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였으며, 그들의 주의를 끌어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아는데로 소식은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므로, 사람들은, 거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났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가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의 각 머리 위에는 불과 같은 작은 것이 있고, 그 언어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정말로 많은 군중을 끌어 모았습니다.) **“별리 퍼지매 우리가 함께 몰려와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여,”** 7 절 **“또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다른 반작용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혼동했고, 놀랐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8 절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된 일이나?”** 여기는, 다른 사투리를 말합니다. 9 절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 절 **“브르기아와 팜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11 절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바울이 고전 14:2 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안에서 신비를 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서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의 사용에 대해 그의 견해를 보이며, 만약에 그것을 공중의 회중 가운데서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타 언어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타 언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없이 타 언어를 말하는 자가 있다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또한 반문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 찬양함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공중의 회중 가운데서 그 사용의 제한, 둘 또는 기껏해야 셋을 권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도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있을 때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없다면, 사람이 타 언어로 발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혼자서 말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므로, 이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중팔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겠지요, 감사를 드리는 것도 되고,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지각을 통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며 또 지각으로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이 사람의 개인적인 헌신의 생활에서 높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고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롬 8:26 에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을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영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뜻이 항상 무엇인지 모르는, 독특한 상황을 도우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분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헌신의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서 당신을 도울 은사입니다. 이 영역들은 은사가 개인적인 헌신의 경험에서 가장 큰 유용성과 표현을 가지는 곳입니다. 바울은 물론 공중의 회중 가운데서, 특히 죄인들이 있을 때는, 은사의 실행을 제한하고, 결코 격려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에 부여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교회 위에 부여졌으니, 다시는 결코 성령을 기다리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 머무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은사로, 즉 이 초기의 기다림 후에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안수를 통하거나, 단지 믿음으로 들은 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셨으며, 마음을 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시거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당신들은 각양각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라 이름 하는, 회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는데, 제자들이 안수하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들로부터 그 능력을 사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것을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사악함도 용서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대낮의 밝은 빛의 역동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고, 다마스쿠스로 인도되어 곧은 거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나니아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에게 말하고 안수하면, 그가 보게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이 보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의 예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얹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증한 대로,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려고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이야기했고,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규격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분을 상자에 집어넣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요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며 종종 갈리는 경우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이라 하며, 만약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도 알지만, 진짜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항상 상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한 양식으로 그 분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방법은 매우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직화하려는 것, 하나님을 방식이나 양식으로 정의하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로이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되 원하는 대로 불고, 너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으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으로 낳는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조도,’ ‘패턴도,’ ‘프로그램도’ 없지만, 영은 그 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에 열려 있어 그 분께서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초기의 부어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후에 영은 단지 믿음으로 받아 드려집니다.

12 절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모두 놀란 사람들은 모였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의심했거나 혹은 당황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13 절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충만하다 하더라.”** 항상 군중 속에는, 당신도 아는 대로, 비웃음을

찾으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하려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냥 말해 버립니다.

14 절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절 “이는 지금이 세 시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겨우 9 시로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입니다. 16 절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17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에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1 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 약속은 요엘서 2 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즉시 그것들을 그 대언과 약속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엘서에 있는 이 약속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것은 요엘 대언자에 의해 언급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일련의 것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성경구절을 강조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영적 계시와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지 않는 어떤 현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적 기초 없이 발생하는 영적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어떤 영적 현상에 대해 그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짜 역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현상으로 돌립니다. 정신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현상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기반 위에 있게 됩니다. 진리의 표준으로 경험이 사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불가사의하고 황당한 경험의 모든 종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경험이 성경적 진리이

거나, 진리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표준이나 기초가 되도록 경험을 허용한다면, 몰몬교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읽을 때 나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시험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것 후에 그들이 몰몬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들의 마음이 타기 시작했던 또 다른 것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타는 경험을 가지고 몰몬경이 말일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내가 진리를 아는 표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표준으로 것에 경험을 열어 주면, 권위를 잃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경험들로 혼란스러울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40 년대의 후반으로 거슬러 가면, ‘전적 찬양(total praise)’이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종소리가 울려나는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유혹했던 저 위쪽 새티코이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천사가 우리와 같이 찬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려고 올라갔으니, 찬양에 함께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말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많이 끌었지만, 겨우 몇 사람을 유혹했을 뿐입니다. ‘전적 찬양’은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약간 높게 피치를 올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들은 서로 다른 음정으로 조화로운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조화로운 종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 모두 흥분했었을 것이고, 그것은 천사가 함께 하려고 내려오는 듯한 흥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딸 중에 하나가 헌팅톤 비치의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곳의 학부모-선생들의 모임에 내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음 교정을 위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다른[비정상적인] 발음으로 말을 해보며, 소리를 내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음의 조화를 증명해 보이려는 매우 흥미로운 연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비음을 만들어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Ninety nine nuns.' 조화롭게 약간의 피치를 높여서, 'Ninety nine nuns'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서클의 여러 가지 음정에서 'Ninety nine nuns'를 말하라고 하고는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천사의 'Ninety nine nuns'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부 주님을 찬양할 때 시작한 조화로운 종소리였다는 설명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영의 노예가 된다고 부르든지,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라든지, 아이들처럼 말하는 것이라든지, 주체할 수 없이 웃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종종 정신의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물론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것에 대한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 아무리 잘 해도 당신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있을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은 요엘 대언자에 의해 말해진 것이라 하며, 그들에게 관찰했던 현상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18 절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19 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21 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의 대언은 마지막 날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마지막 날에 있음을 믿고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약속은 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을 통해 당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엘서를 인용하여 이 날들이 환란 후 즉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는 것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 운석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 등등은 대환란 기간동안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이 환란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바르게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의 크게 지각할 수 있는 날로까지 공의를 통하여 재림으로 당신을 데려간다는 요엘의 대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실 크게 지각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므로, 오늘날에도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영의 역사와 영의 은사들의 유효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영으로 채움 받는 것이 필요하고, 바울이 고전 12 장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영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들이 관찰했었던 현상에 대해 그는 그들에게 성경적인 기초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의미를 말해 주기 위하여, 그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받아 연설한 최초의 것입니다. 그 연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그 분에 대해

7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4 번째이며, 중심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메시지의 심장이며, 오늘날 복음에 있어 심장으로 남아 있고, 복음의 메시지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고전 15:3-4), 나 역시 전해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그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22 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맨 처음 규정한 것은 바로, 그 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기적과 표적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시고, 그 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 3 장에 있는 대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왔을 때, 그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고는 당신의 하신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분의 진정성에 대한 증인으로 그분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분은, 나를 믿으라,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보이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뽑아 들었던 것이지요.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 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23 절 “그 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졌거늘 너희가 그 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고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폭동과 같은 상황도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증명하기 쉬운 일이잖아요. 성경 구절을 통해 대언된 사실들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시 22 편을 펴보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울부짖음,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구나, 주가 그를 기뻐하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들을 말하며, 벌써 천 년 전에 다윗은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손과 발을 찢렸음이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다 대언된 것이었기에, 천 년 뒤에 일어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천 년

전에 아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하여 대언자의 마음에 이 일들을 기록하도록 집어 넣으셨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 53 장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기사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읽어 보면, 그가 찢림은 우리들의 범죄들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채찍질까지도 대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묘사된 것들은, 어떻게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는지, 어떻게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언된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오백 년 내지 천 년 전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이거나,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유대인에게 책임 지우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그것은 명청하고 어리석은 논쟁과 같은 이유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라는 위치에서 유대인을 비난하려 했고, 불행히도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의해 핍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 받으신 것의 책임을 찾으려면, 거울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또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려는 것은 계시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분의 죽으심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예지에 의한 것이었음을, 즉 법을 모르는 자들의 손에 의해 붙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 놓이셨음을 선언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마음에 지닐 것이 있는데, **24 절 “하나님께서 그 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까닭은 사망이 그 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이 그 것에 대한 희생제물,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 분은 울타리를 찢어 버리셨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 그 분께서 그것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것에 대한 희생제물,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 분은 울타리를 찢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그래서, 그 분께서 붙들리실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네 번째의 강조점에서, 베드로는 성경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것들로 돌아갑니다. 나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구절에 친숙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는, 연설할 때, 성경구절을 활용하는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엘서 2 장의 본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봅시다! 하고, 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분명히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가 시편을 인용하되, 가장 적합한 성경구절을 취하여 활용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믿음과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성경적 토대와 기초를 보여 주기 시작합니다. **25 절 “이는 다윗이 그 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 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6 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27 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28 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음이니라.”

시편 16 장의 한 부분을 인용할 때,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29 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볼 수 있다면, 현재까지도 시온산 위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다락방 아래로 내려간 방에 큰 은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체가 그 관에 남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타는 촛불을 들고, 시온 산, 거기 위에 있는 다윗의 무덤에서 기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 절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고,” 31 절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부활에 관련한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나 자기의 혼을 지옥에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구할 때,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삼일 낮과 삼일 밤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삼일 낮과 삼일 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신 그 분,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분이 가시어 감옥에 갇힌 혼에게 설교하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지만, 이사야의 대언은 갇힌 자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혼은 하데스[지옥]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분은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지셨을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 성경구절을 확인하고 있으며, 결코 다윗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그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내려감이 아니었을 것을 메시아에게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 절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성경적 배경을 보이면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분의 혼은 하데스에 머물지 못하시며, 그분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며, 즉 우리는 부활하신 그 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3 절 “그러므로 그 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 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있을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에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4 번째 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겠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분께서 다른 위로해 주는 자[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세상은 그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 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분을 아나니 이는 그 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교회에 그것을 능력으로 주셨고, 이것을 당신은 지금 보고 듣는 것입니다.

34 절 “이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35 절 “내가 네 원

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음이니라.” 36 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37 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찢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찢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독한 실수를 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할꼬?

38 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적으로, 생각이나 사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처음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진정함에는 약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사상이라고 느낄지 모르나, 여전히 그것을 계속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당신의 생각과 일관되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질 때 삶의 양식이 바뀔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예수님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의 사면을 위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죄의 사면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39 절 “이는 이 약속이,”**(무슨 약속입니까? 요엘서 2 장에 있는,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는 것이죠. 너희 아들과 딸들은 대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 자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 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그 약속은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성령님의 능력의 약속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삶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계시될 것인가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 분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라며,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은사와 능력과 행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사랑의 최고조, 삶에 있어 성령님의 열매, 삶에 대한 성령님의 진짜 증거는 나의 삶에서 넘쳐흐르는 사랑일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내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증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진짜 증거는 우리의 삶 안에, 또는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40 절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하고 격려하여 이르되, 이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41 절 “그 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침례를 받도록 초청할 때, 삼천 명 가량이 반응할 만큼 좋은 도약으로 출발하여 모두가 함께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활동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태이며, 본보기입니다.

42 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이것은, 그들이 모여서, 성경구절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구약성경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구약성경을 읽는 것이 흥미로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제 가운데 머물고,”**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서로의 각 지체라는 인식 아래, 영과 느낌이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빵을 나누며,”** (빵을 쪼개 나누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함께 잔을 듭니다.) **“기도하더니,”** 네 가지의 일이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빵을 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3 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44 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 절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46 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또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47 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거기서 우리는 본보기와 형태와 결과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십니다.

지금 그림, 그들의 소유를 판다는 것과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 의해 지시된 것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들이 받았던 액수 중 일부를 가지고 왔고, 그들은 그것들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으로 들어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내려놓자, 베드로는, 이것이 네가 그 땅을 판 값이냐? 고 물었으며,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네가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팔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네. 아무도 네게 그것을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판 뒤에도 네게 그 자금을 가져오라고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잖아! 이것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왜 너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마음을 가졌단 말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말았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식한 것이 폭로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왜 그녀가 그것을 몰랐는가 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치우고 매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녀에게 묻기를, 이것이 그 판값의 전부냐? 라고 하자, 그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의했을까? 그녀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빠진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시도했던 공유 형식에 대한 실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논쟁, 즉 일어난 두 번째의 문제는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유대 여인, 혹은 헬라 문화를 따르는 자들에게 교회의 구체품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를 따라 사는 과부들이 교회의 구체 프로그램의 분배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사도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두 번째 문제의 배경입니다. 이 두 문제들은 보통 모든 일이 가지고 있는 논쟁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교회가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교회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가야만 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도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들 안에서 세워질만한 어떤 형식 같은 것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만 자발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실제로 지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 단지 일어난 일이며, 사람이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성경구절로 결코 명령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행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을 따라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에,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놀랍고, 좋고, 큰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순전한 결과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서 떠나야 하며, 오직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단지 영의 일들로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일하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품질 보증된 것들의 흥분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분명 흥분시키고, 주님의 행하심을 널리 알리도록 유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을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스릴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면 알수록 일어나는 일을 더욱 더 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와 그 삶과 교회 안의 당신의 영의 역사에 관련하여 계속 공부함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또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일이 놀랍고 경이롭게 서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일을 계속하소서. 우리가 복종하고 헌신함으로, 그리고 약속과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 안에, 또는 통하여 당신이 하시기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